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46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대구·경북 여행 도민 1명, 체류객 1명 ‘모두 음성’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50일의 기록② - 경제
- 제주도, 코로나 방역·민생 안정 578억 긴급투입
-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 상환 1년 연장
- 개학·휴원 연장 긴급보육·돌봄 지속 유지
- ‘3차례 개학 연기’ 판로 막힌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 확대
- 제주도, 면역력 낮은 산모·신생아 ‘맞춤형 방역’ 강화
- 감염병·환경·안전성 검사 업무 공백 ‘선제적 차단’
- 천주교 제주교구, 22일까지 미사중단 연장

2020. 3. 18.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3.18.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3.18.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4명 (격리해제 2명, 격리 중 2명)

구분 (단위: 명)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 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	1,822	4	2	2	0	1,818	47	1,771	52
일일 증감	+51	0	0	0	0	+51	+6	+45	+2
전국	295,647	8,413	1,540	6,789	84	287,234	16,346	270,888	

□ 입도객 현황 ['20.3.17.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6,948명 (작년 같은 날 대비 △56.2%, 전일 대비 +2.1%)

구분(단위: 명)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6,948	16,882	66	1	1	64
	2019년	38,697	34,692	4,005	2,059	190	1,756
	증감률	△56.2%	△51.3%	△98.4%	△99.9%	△99.5%	△96.4%
누계 (2.23.~)	2020년	383,627	377,715	5,912	417	590	4,905
	2019년	854,244	760,339	93,905	53,255	5,562	35,086
	증감률	△55.1%	△50.3%	△93.7%	△99.2%	△89.4%	△86.0%

○ 대구·경북지역 입도객 현황

- 대구-제주 항공노선(2편): (도착) 372명 (출발) 367명
- 대구·경북지역 출신학생 입도: 2명 (2.6. 이후 누계 : 182명)

□ 공항만 발열감지 운영현황('20.3.17. 기준)

구분 (단위: 명)	열감지자 총계	재측정 후 귀가 (37.5℃이하)	문진상담(37.5℃이상)		
			소계	진료상담 후 귀가조치 (의심증상 無)	선별진료소 이송 (의심증상 有)
일계	42	40	2	2	0
누계(2.3~)	1,721	1,604	117	91	26

* 이송대상자 26명 중 17명 단순발열로 귀가, 9명 검사(음성9, 검사 중0)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7. 기준)

구분(단위: 명)	총계	제주도민	타 지역 주민(제주 체류)
일계	2	1	1
누계(3.7.~)	51	48	3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20. 3. 18.(수)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없음□		사진: 있음■ 없음□		후속자료: 있음

대구·경북 여행 도민 1명, 체류객 1명 '모두 음성'

- 대구·경북지역 방문이력 도민 48명·체류객 3명 등 총 51명 검사 진행 -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1명과 제주 체류객 1명에 대해 추가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17일 도민 1명과 체류객 1명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이뤄지면서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3월 5일) 이후 검사 인원은 18일 오전 10시 기준 총 51명(제주도민 48, 대구·경북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체류객 3)이다.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17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2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82명으로 파악됐다.
 - 이 중 109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73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 16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72명, 출발 탑승객은 367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

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 검사에서도 18일 오전 현재까지 특이 사항이 없는 상태다.

대구 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상

(검사당일 기준 14일 이내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 무증상자)

- 1순위 : 주민등록상 주소가 2월21일 이전 제주도민으로 되어 있는자
(*2월 21일 기준은 우리도 첫번째 대구 관련 확진자 발생)
- 2순위 : 제주도 주소를 갖지 않은 자(도외)로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자 중
1주일 이상 체류자(체류기간 증명확인 항공권, 영수증 등 확인 전제)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공정지원단 공항공정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기획조정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064) 710-8820

[붙임] 대구·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 **대구-제주 항공노선 탑승객 현황 ['20.3.17. 기준, 잠정치]**

제주국제공항 대구-제주 간 항공기 운항 제주출발 및 입도 현황 (단위: 명)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제주 출발	355	312	303	358	351	323	354	367	367
제주 도착	295	364	369	368	338	337	291	360	372

※ 출 · 도착 2회 발열체크, 도착 시 이동경로 구분, 이동경로 1일 2회 방역

□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7. 기준]**

대구 · 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 (단위: 명)									
	누계 (3/7~)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계	51	3	2	0	5	1	1	1	2
도민	48	3	2	0	5	1	1	1	1
제주 체류객	3	0	0	0	0	0	0	0	1

□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20.3.17. 기준, 잠정치]**

대구 · 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단위: 명)								
계	자율격리 해제 (2/6~3/3)	14일 미경과 소계	14일미경과 (3/4~3/17)					
			3/4-3/12	3/13	3/14	3/15	3/16	3/17
182	109	73*	29	17	15	7	3	2

* 대학별 학생관리: 73명(제주대(격리기숙사39, 자가 등 25) 관광대(자가1), 한라대(대학 자체숙소 6, 자가 2))

□ **공 · 향만 발열감지 현황 ['20.3.17. 기준]**

공 · 향만 발열감지 현황 (단위: 명)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열감지자	44	31	15	27	42	33	38	28	42*
누계(2/3~)	1,465	1,496	1,511	1,538	1,580	1,613	1,651	1,679	1,721

* 대구발 비행기 탑승객 중 3명 발열감지 후 체온 측정 시 발열 증상 없어 귀가조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50일의 기록② - 경제 제주도, 경제 활력화 ‘총력’ … 도민 위기 극복 ‘한뜻’

- 무사증 입국 일시중단 후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구성 경제대책 발굴 추진 -
- 특별경영안정지원금·농어촌진흥기금 등 지원 확대… 착한 임대인 운동도 확산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본부장을 맡아 직접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가 출범한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7일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대책을 소개했다.
- 원희룡 지사는 2월 4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지역경기 위기 극복을 위해 2월 6일 지역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했다.
-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는 경제, 관광, 건설, 1차산업, 지역사회, 사회복지 등 6개 분야 130여 명의 민간기관·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 지난 2월 13일 본격 활동에 돌입한 이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과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굴하고 있다.
- 특히, 도정과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를 연결하는 비상경제지원

단 가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력화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 비상경제지원단 산하에는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협의체 관련 활동 전반을 관리·조정하고 있다.

□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관광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지원금을 당초 7,000억 원 규모에서 2,000억 원을 추가해 41개 업종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제주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 또한 업체당 3,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있다.

-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도내 16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금리 인하·원리금 상환 연장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행심리 위축으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전자금 2000억 원 지원 외에 2,700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했다.

- 농어촌진흥기금은 기존 1,8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700억 원 확대했고, 이자도 인하(0.9%→0.7%)했다.

- 또,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34억 원을 긴급 투입해 소비촉진 마케팅, 택배비 지원, 해녀어가 생계 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연안 여객터미널 내 입주시설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도 감면했다.

○ 제주도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의 보육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지원의 한시적 확대에 맞춰 부모부담금의 20~40%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 행정의 경제 분야 각종 지원과 더불어 민간 분야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 봄’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공유재산 내 상가·관광지·구내식당 등 421개소에 대한 대부료를 30% 감면하고 있다.

- 제주도에 이어 제주관광공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도내 공기업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각종 임대료를 감면했다.

○ 제주도는 민간분야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고생했어요! 고마운 가게’ 캠페인 전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와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청정·안전 지역 이미지를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제주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라며 “철통 방역을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과 함께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 문의: 기획조정실 비상경제지원단 고경민 실장 064)710-2934

제주도, 코로나 방역·민생 안정 578억 긴급투입

- 도, 17일 현재 예비비 등 활용 방역·경영안정 228억 원 집행 -
- 취약계층 지원 정부추경 국비 350억 원 교부결정 즉시 집행 예정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에 지금까지 총 228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정부 추경에 따라 확보된 국비(취약계층 지원비) 35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금까지 투입된 228억 원의 용도를 살펴보면 예비비 78억 원은 방역·대응장비를 구입하고, 취약계층 예방물품을 지원하는 데 52억 원을 집행했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예비비 26억 원을 투입해 예방물품 구입, 관리기관 운영비, 장비 등을 보장할 예정이다.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1억 원은 소독약품 및 의료용품, 긴급방역 및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에 사용 중이다.

○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22억 원은 방역용 소독기, 이동식 X-ray 구입,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을 구입하는 데 지원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관광업체’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 특별융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비 87억 원을 투입했다.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기존) 7천억원 (이자 280) → (확대) 1조원(이자 330)
- 관광진흥기금 : (기존) 1천억원(이자 128) → (확대) 5.7천억원(이자 164)
- 식품진흥기금 : (기존) 7억원 융자 → (확대) 8억원 융자(융자 1), 상환유예 7억원

□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 등을 위해 총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1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했다.

○ 정부 추경을 보면 정부직접사업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6.8조원, 민간투자사업(정부 직접투자)으로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에 2.4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급여·아동수당·노인 일자리 지원·가정양육수당 등에 2조 597억 원을 대상자 수에 따라 자치단체에 상품권 등 소비 쿠폰 형태로 정액 지급할 계획이다.

□ 이번 정부추경에 따라 제주도에 지원되는 국비 규모는 3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제주도는 국비 350억 원에 대한 보조결정 즉시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편성해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 제주도는 올해 추가 교부된 국비매칭 지방비 부담분, 법정필수경비(기금전출금, 기타특계전출금, 교특전출금 등),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비를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 추경 편성에 따른 재원은 △세출예산 효율화 470억 원 △순세계 잉여금 427억 원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보전분) 97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360억 원 등이다.

○ 또한, 이와 별개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 포괄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다.

○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

의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된 세출예산 가운데 상반기 중 64%를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며 “이번 추경 시에도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민생경제 붐업 사업’의 재원 확보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추경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25일 완료되는 재정진단 결과 등을 고려해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 및 지원계획 1부

※ 관련 문의: 기획조정실 안우진 예산담당관 064) 710-2310

(단위: 억 원)

구 분	구 분	투입액	내 용	비 고
합계		578		
예비비	소계	78		
	1차	52	- 관리대책 추진 인력 및 대응장비 구입 49억 -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3억	
	2차	26	예방 및 방역물품 구입 등 26억	
기금	소계	41		
	재난관리기금	11	긴급 방역 및 방역물품 구입 등 11억	
	재해구호기금	30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 30억	
경영안정 (이차보전 등)	소계	87		
	관광진흥기금	36	이차보전액 128억 → 164억(36억 증)	
	중소기업육성기금	50	- 이차보전액 250억 → 280억(30억 증) - 특별보증출연 30억 → 50억(20억 증)	
	식품진흥기금	1	융자 7억 → 8억(1억 증)	
국고 보조금	소계	334		
	既 교부	4	- 보건소 선별진료소장비(이동식 X-ray) 구입 2억(전액국비)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억(국 50%) -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국 50%)	
	정부추경	330	-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326억(전액국비) -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지원 등 - 보건소 음압특수 구급차 4억(전액국비)	예 정
교부세	소계	38		
	특별교부세	18	- 감염 긴급대책비(방역물품 구입 등) 16억 - 감염예방 홍보물품구입 등 2억	
	보통교부세	20	'19 정산분 및 추경분	예 정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 상환 1년 연장

- 올 4~12월 만기 도래 2,905곳 자금난 해소... 도, 이차보전금 26억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만기 도래로 일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41개 업종을 대상으로 2,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업종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

○ 융자 기간은 회차 별로 2년까지이며, 총 3회 차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지난 2014년 대출을 받은 경우 올해로 3회 차 연장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환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다.

○ 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금 일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융자와 보증에 대해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총 2,905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 업체의 융자 규모는 1,515억 원이다.

○ 제주도는 상환 연장에 따른 1.7%의 이차보전금으로 26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만기도래금액 1,515억원 X 1.7%(3회차 이차보전율) = 26억 원

○ 제주도는 오는 20일 신용보증재단 및 16개 금융기관과 만기

연장에 따른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4월 1일 만기 도래
업체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 제주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 관련 문의: 일자리경제통상국 이기택 소상공인기업과장 064) 710-2636

개학 · 휴원 연장 긴급보육 · 돌봄 지속 유지

- 제주도내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4월 5일까지 연장 -
- 어린이집 내 발열체크 의무화... 저소득층 아동 개학 때까지 점심 제공 -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489개소)과 지역아동센터(66개소)의 임시 휴원 기간을 오는 4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는 가운데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기존 돌봄 서비스를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취약계층인 영·유아 보호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의 휴원을 결정한 바 있다.

- 제주도는 도 자체적으로 1차(2.25~3.1) 휴원을 진행했으며, 뒤이어 정부의 결정에 맞춰 2차(2.26~3.8)와 3차(~3.22)까지 연장했다.

○ 제주도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차 휴원을 진행했으며, 3월 9일부터 22일까지 휴원을 연장했다.

□ 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따라 제주도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보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긴급보육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진행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 17일 기준 긴급보육 이용 아동은 모두 8,412명으로 현원(2만

2,587명)의 37% 수준이다. 긴급보육은 수요가 없는 2곳의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하고 있다.

□ 제주도는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9,900여 만원을 투입해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 어린이집 내 발열체크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해 하루 2차례 아동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제주도는 휴원 명령 기간 동안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고 있고, 무급휴가를 받는 보호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1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 제주도는 보육시설의 휴원, 개학 연기에 따른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중 정부 지원 비중 확대(0~85%→40~90%) 기간을 4월 3일까지 연장한다.

○ 정부 지원 후 본인부담 금액(가·나·다형 40%, 라형 20%)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추가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휴원도 4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을 하는 센터는 16일 기준 전체 66개소·1,684명 중 62개소·600명(36%)이다. 나머지 4개소는 수요가 없는 상태다.

○ 휴원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점심 제공 등의 긴급 돌봄을 지원하며, 미등원 아동 모니터링을 통해 자가급식

등을 확인하게 된다. 미등원 아동 중 자가급식이 어려운 아동은 센터에서 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있다.

□ 특히, 제주도는 급식이 어려운 조손 및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부식과 도시락을 제공하는 계획을 개학 때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청소년 4,331명이다.

□ 한편, 제주도는 보호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급·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120만덕콜센터(120),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064) 710-2860

3차례 개학 연기' 판로 막힌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 확대

- 제주도, 참여기관 확대 통해 1~3차 꾸러미 행사 추진 10톤 이상 처리 -
- 수출길 막힌 백합 등 꽃 사주기 운동·포장 자재비 등 화훼 농가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는 3차례의 개학 연기(4월 6일까지)로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도 교육청과 함께 쪽파와 대파 등 저장성이 어려운 엽채류를 중심으로 1차(3월 9일~13일)에 이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2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공동구매 완료 : 1,270박스, 3,038kg

※2차 공동구매 : 1500박스, 3,600kg 예정

□ 특히, 17일 정부의 3차 개학 연기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구매대상을 행정시와 농협으로 확대하고, 3차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이에 앞서 도와 행정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는 16일 오후 2시 제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정부의 개학 시기 추가 연장 검토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 3차 공동구매는 쪽파·대파·브로콜리·양파 등 4개 품목(2.7kg)으로 구성된 꾸러미 1,500상자(4,050kg) 판매를 목표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 제주도는 세 차례 공동구매를 통해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10톤

이상을 우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일본 항공 노선이 중단되면서 수출길이 막힌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 제주도와 도의회, 농협, 교육청, 경찰청 등이 백합 1만여 본을 구입한데 이어 지난 2월17일부터 ‘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 제주도는 화훼 농가를 위해 포장자재비 및 화훼 종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화훼 소비 촉진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농축산식품국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064)710-3050

제주도, 면역력 낮은 산모·신생아 ‘맞춤형 방역’ 강화

- 산후조리원 9곳 특별방역...건강지원사업 이용자·서비스인력 감염예방 관리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 등 신생아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면역력이 낮은 점을 고려해 도내 산후조리원 9개소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 방역대책을 보면 ▲매일 2회 이상 자체 방역·소독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지급 ▲방문객 출입 제한 ▲임산부 및 신생아, 종사자 대상 매일 1회 이상 발열검사 등이다.
- 또한, 제주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감염 예방 관리도 강화한다.
 -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피 주는 산후조리 서비스다.
 - 제주도는 서비스 이용자인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의심증상 발현 여부 등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할 계획이다.
 - 서비스 제공인력의 질환(증상) 발생 시 대체 인력 투입하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바우처 유효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및 그 가족이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되는 등

□ 특히, 제주도는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할 방침이다.

○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야간 또는 주말에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도내에는 연동365일의원과 탐동365일의원 2개소가 운영 중이다.

□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와 보호자의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다”며 “맞춤형 특별방역으로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감염병·환경·안전성 검사 업무 공백 '신저적 차단'

- 제주도, 산하 검사기관 검사인력 격리·시설폐쇄 최악상황 대비 -
- 대체인력 확보·검사 가능기관 협조체계 구축...도민 불편 최소화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진단과 악성 가축전염병 등 검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도는 산하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연구원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검사인력 일부 격리, 시설폐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검사인력 격리에 대비해 예비인력을 확보하고, 도내 검사 가능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 각종 감염병과 오·폐수,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인력이 격리됐을 때 예비인력 4명을 투입한다. 부서별 연구 업무는 일시 중지하고 민원 의뢰 검사에 집중한다.

○ 연구원 전원 격리 또는 시설 폐쇄 시

△코로나 검사는 국립제주검역소

△식중독균·식품미생물 검사는 제주대 생명과학기술센터

△유통식품 검사는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농산물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수산물 검사는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악취 검사는 제주악취관리센터

△오·폐수 검사는 제주환경개발

△수질 검사는 상하수도본부 수질검사실, 제주대 생명과학기
술혁신센터에서 진행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동물위생시험소는 정밀진단팀이 격리
되면 질병별 예비인력*을 활용해 의심축 신고에 대응한다.

*정밀진단요원 예비인력: AI 5명, ASF 미 격리자 활용, 구제역 5명

- 동물위생시험소 전원 격리 또는 시설 폐쇄 시에는 상시에
찰은 일시 중단하고, 의심축 신고에 따른 검사업무에 검역
팀과 동물보호센터 인력, 가축방역관이 투입된다.
-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다른 정밀진
단기관으로 송부해 확진검사를 진행한다.

-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양식광어 등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과 안
전성 검사 인력이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비 인력
2명이 투입되고, 공수산질병관리사(10명)가 지원하게 된다.

- 수산물안전센터 등 검사시설이 폐쇄 또는 전원 격리되면
△방역 검사는 제주대 수산백신연구센터 △안전성 검사는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분담해 검사가 이뤄진다.

- 제주도는 각종 진단검사 업무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과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보건환경연구원 김시형 총괄운영과장 064) 710-6061

동물위생시험소 문성환 방역진단과장 064) 710-8540

해양수산연구원 강봉조 수산물안전과장 064) 710-8510

천주교 제주교구, 22일까지 미사중단 연장

- 제주도, 집단감염 방지 위한 종교계 노력에 감사 -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천주교 제주교구(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미사 중단을 일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6일 제주 4대 종단으로 구성된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데 이어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천주교 제주교구(28곳)은 지난 2월 27일부터 사상 최초로 모든 미사를 중단하고, 회합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
 - 제주교구는 당초 17일부터 미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 확산 사례가 이어지면서 22일까지 미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 건강에 대한 안전을 생각해 주신 종교계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종교계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이번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강기종 종교팀장 064)710-3206

- 〈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6.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방법
 8.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9.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참고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해와감염병
NOW
국민안전의 동반자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진료 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문진 시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 실시

* 관할 보건소 신고 필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s://ncov.mohw.go.kr)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1


2020.3.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2항 전단 및 제 24조 제 1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수칙(제23조)을 준수하여야 하며, 격리장소 외의 장소로 출입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남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탁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소독제를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최소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세척이 되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화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피로

참고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스트레스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2020.3.6. 1/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감염병 스트레스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감염병 위험에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불안과 공포가 커져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의심이 많아져 사람들을 경계해요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2020.3.6. 2/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상담 지원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련 정보와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감염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등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는 우선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고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2020.3.6. 3/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
-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힘든 감정 털어놓기**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어보세요.
-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사 등으로 정신건강을 지켜요.

2020.3.6. 4/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
어린이의 수준에 맞추어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 불안감 스트레스 도와주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가족들의 힘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
감염병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2020.3.6. 5/6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트라우마센터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기상담전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국가트라우마센터** | <https://nct.go.kr>
질병관리본부 | <http://www.cdc.go.kr>

2020.3.6. 6/6

2020.3.7.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있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확인하세요! ↗

만약, 위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확진자 및 가족

02-2204-0001~2 (국가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

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

055-520-2777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발행일 : 2020.2.27.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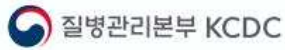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상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